

# 펜데믹 지나니 경기침체…韓 경제 위기

**코로나 후폭풍 물가 급등, 전쟁에 공급망 교란 악화  
성장률 2%대 중후반 후퇴 예상…물가 4%대 전망**

전세계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나 싶더니 그 후유증으로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 탓에 물가가 치솟는 것은 물론 경기둔화까지 우려되는 등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가 짙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주요국 중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먼저 헤쳐 일어서는 저력을 보여주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일제히 급등한 에너지·곡물·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 등 대외여건은 다시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12일 관계부처와 통화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올해 경제 성장을 수정 전망치를 내놓는다.

지난해 12월 이전 정부가 제시한 3.1%에서 얼마나 하향 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2020년 한국 경제는 -0.9% 성장률로 역성장 했으나 지난해 반등에

성공하며 4.0%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정부는 물론 대외 기관은 올해도 3%대 성장을 예측하는 끝이 많았지만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후퇴가 불가피해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전쟁 여파로 더욱 가중됐다. 국제 유가는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고, 곡물과 원자재 수급에 있어서도 비상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경우 직급의 상황에 매우 취약하다. 국제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한 물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초 3% 수준이던 물가는 두 달 만에 4%대를 돌파해 지난달 5.4%까지 치솟았다.

공급망 위기 속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까지 폭발하면서

물가는 견접을 새 없이 치솟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고심하고 있지만 급등세를 제어할 맹한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연간 물가 상승률을 4.8%로 대폭 높였다.

주요국이 기준 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긴축에 나서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흐름에 있어 기막힌 반전을 이끌어내지는 못하는 혼국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린 데 이어 5월에는 한 번에 0.5%p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는 8.6%나 올랐다. 198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은행(한은)은 지난 5월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현재 기준금리는 1.75%까지 오른 상태다.

한은은 앞으로도 물가 상승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통화정책도 물가에 비중을 두고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 가능성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올해 4차례 남은 통화정책

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당분간 5%대 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물가가 6%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내놓고 있다. 6%대로 올라서면 이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치솟는 물가도 문제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것도 통화당국으로서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1년 후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는 일반인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은 3.3%다. 전문가들의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은 3.7%로 더 높은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근로자는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이러한 임금 인상분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 등에 더해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부채질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물가 상승 흐름 속에서도 경기둔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4월 경제 지표 중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하락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뉴스

**월세, 두 달째 전세 추월  
5월 임대차 거래 '월세' 58%**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전체 임대차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전세를 넘어섰는데 5월에도 전월대비 월세비중이 7.7%포인트(p) 늘며 두 달 연속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다.

1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34만9073건 중 월세거래는 20만1621건으로 전체 임대차계약의 5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다.

올해 들어 월세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1월 전체 임대차거래 20만 4216건 중 월세가 9만3851건으로 46%를 차지했는데 2월(48.8%)과 3월(49.5%)에 이어 4월에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4월 전체 임대차거래 24만7966건 중 전세는 12만3787건, 월세는 12만 4179건으로 월세 비중이 50.1%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들이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가 월세보다 커지면서 월세 선호도가 높아졌는데 보유세 부담 등으로 월세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과의 수요가 맞아 떨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 '빨간날' 얼마나 될까  
설·추석 연휴 4일 '최장'**

내년 실제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총 67일이며 가장 긴 연휴는 4일간의 설과 추석 연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윌력 요항'을 발표했다.

2023년 윌력의 적색 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3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해 총 69일이 있으나, 신정(1월 1일)과 설날(1월 22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이다. 이는 올해(67일)와 동일하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9일이다.



신세계百, 총 130억 규모 와인 행사…최대 90% 할인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와인 결산전은 총 130억 규모다. 총 60만 병, 10개 수입사가 참여하며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사진은 신세계 강남점 2022년 상반기 와인결산. /뉴스

## '누리호 성공 발사'…KT, 통신지원 안정성·품질강화

**발사 통신망 운용 전담…완벽한 통신서비스 체계 구축**

KT가 한국의 첫 독자 우주발사체 누리호 성공 발사 지원을 위해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다.

KT는 오는 15일 예정된 '누리호(KSLV-II)' 2차 발사 성공 지원을 위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안정적인 통신회선과 방송회선을 지원하고 주요 전송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누리호는 장장 12년의 연구·개발 기간을 거쳐 순수 국내 기술로만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다.

오랜 노력 끝에 일궈낸 성과가 성공적인 발사로 연결되기 위해선 '완벽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우주 발사체 발사임무 수행을 위해 KT 통신회선을 입차해 운용 중이다. 통신회선은 누리호의 발사와 발사체에 대한 비행위치, 비행 상태에 대한 데이터 수신을 가능하게 한다.

누리호 발사 통신망 운용을 전담하는 KT는 지난해 1차 발사 때보다 통신망 전송구간의 안정성과 품질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발사 당일 추적 회선의 안정화를 위해 전송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일부 단일 전송 구간은 완벽한 이원화를 완료했다.

우주과학관은 메인으로 발사통제동, 미디어센터, 낭도방파제, 우주전망대, 연구동 등 6개소에 방송장비를 구축하여 방송회선은 총 40회선을 구성한다.

동절기 기능을 적용했다. 주요 전송시설에 대한 보안도 한층 강화했다. 발사 당일에는 긴급 상황 대처를 위한 전답요원을 주요 전송시설에 배치할 예정이다.

참관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발사 전망대, 남يل해수욕장, 우주과학관에는 무선망 호소통을 위한 이동기지국 차량 2대를 배치하고 무선망 관제도 강화한다.

KT는 아울러 누리호가 발사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전 세계로 원활하게 중계될 수 있도록 방송장비를 구축하고 방송회선 구성도 지원한다.

우주과학관은 메인으로 발사통제동, 미디어센터, 낭도방파제, 우주전망대, 연구동 등 6개소에 방송장비를 구축하여 방송회선은 총 40회선을 구성한다.

## '빔 거리 세계 최고 수준' 600m 실현…국산 헤드램프 개발

**한국광기술원, 레이저·LED 하이브리드 헤드램프 국산화**

한국광기술원이 빔 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을 만족하는 '레이저·LED 하이브리드 헤드램프' 상용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한국광기술원은 주에이엔에스, 에이티크솔루션, 대주전자재료주와 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개발에 나선 끝에 세계 최대의 빔(Beam) 도달거리를 실현한 레이저·LED 하이브리드 헤드램프(Head Lamp·전조등)를 국산화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자

시스템산업 핵심 기술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개발했다. LED 헤드램프에 레이저다이오드(3W)를 결합한 형태로 차량 전방 600m 이상까지 고광도 빔을 비출 수 있다.

현재 해외 선진 제품의 최대 빔 도달거리는 BMW-X6 500m 이상, 아우디-R8 최대 600m, 랜드로버 레이저로 200m 이상, 벤츠 S-class 최대 650m로 이번 개발 제품 대비 성능이 낮거나 동일한 수준이다.

그간 레이저 헤드램프는 해외 선진

사들 위주로 상용화됐으며, 국내의 경우 기술 개발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을 뿐 상용화해 성공한 제품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한국광기술원이 개발 컨소시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레이저용 형광체부터 모듈, 유닛, 시스템까지 일체의 상용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해외진출을 위한 교류보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집광 성능이 높은 초소형 광학계 설계·제조 기술을 비롯해, 열과 충격에 강한 레이저 헤드램프 제조에 필요한 차별화된 핵심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권형안 기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모 참여하세요

전남도 20일까지 접수…스마트 물류 확대 기대

전남도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3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스마트화와 체계적 경영관리를 위해 센서와 통신기능을 장착한 물인터넷(IoT) 기능과 농산물 생산 이력 관리시스템(RFID), 통합관리지원시스템(ERF) 사업을 도입, 에너지 절감은 물론 경영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시군단위 원예산업종 합계액에 참여하고, 사업신청 직전 3년 간 농식품부의 신지유통종합평가 결과와 선정된 조직(지역연합·품목광역·참여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이다. 다만 사업부지를 확정한 경우에 한한다. /권형안 기자

## 광주전남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신규 선정

광주전남중기청, 2022년 제1차 지원 대상 20곳 선정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장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올해 1차 지원 대상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을 각각 선정했다.

지난 10일 광주전남중기청에 따르면, 지역별로 광주는 백년가게 5곳, 백년소공인 2곳, 전남은 백년가게 10곳, 백년소공인 3곳 등 총 20곳이 신규로 지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광주·전남지역 백년가게는 131곳, 백년소공인은 69곳으로 늘어났다. 업력, 경영철학, 제품·서비스뿐 아니라 기업승계,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되면 현관과 상장스토리가 달린 스토리보드를 지원받는다. 온라인 판로와 시설개선 등 성장지원 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은 입점점원,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 관련 기초교육부터 입점판매 전반에 대한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속 가능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혁신성을 지원

하기 위해 '선도형(재지정)'을 신설해 지원금액을 상향했다.

스마트오더·디지털시아이니지 등 스마트기술 도입과 프랜차이즈화 지원 등 지원내용도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백년가게는 역사가 살아 숨쉬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지역 대표 명소가 전국 대표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동구에 위치한 '황토길'은 1992년에 다도, 서예를 가르치는 문화대학 사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청년층이 어우러진 광주 대표 향토음식 전문점으로 아들이 승계 받아 운영 중이다.

각 분야에서 전통성과 기술성을 인정 받은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장들도 백년소공인으로 다수 선정됐다.

광주 북구의 '대건목공' 임종렬 대표는 전통성과 기술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명장 647호로 지정됐다. 꽃살창호를 전문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건축에 전통창호를 접목하는 등 전통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권형안 기자

## 광양만경제청, 中기업 유치 적극 나서

칭다오 제조기업 대상 해외진출 거점으로 광양만권 제시

광양만경제 자유구역청은 지난 9일 서울 Kotra에서 '세계 공급망 재편 대응 중국 청다오 지역 온·오프라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는 최근 세계 경제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자 광양만권 투자환경 홍보 및 중국기업의 투자 성공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Kotra 청다오 무역관과 청다오시 정부상무국과 공동으로 주관해 중국 제조 및 물류기업 20개 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광양만경제청은 에이치에이엠(영유아 분유), 킹톱스(생리대), 광양 알루미늄(알루미늄 판매), 마이밸로

(전기자전거) 등 광양만권 내 중국 기업 투자 성공사례를 안내했으며, 이어 중국 리튬인산철 배